| 현불 논단 |

승가화합, 소유의 평등부터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승가 양극화 심각" 우려 많아
불평등, 승가화합 위협의 근원

부처님 "평등하게 소유" 강조
가분물, 동등하게 분배해 소유
불가분물은 '공동 소유'토록 해

現 한국승가 소유 원칙 안 지켜
승가공동체 의식 강화 절실해
공공재원 형성, 방편적 고민을

한국 승가에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이 존재한다는 말이 들린다. 계량적,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스님들과 신도들의 체감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우려의 목소리인 듯하다.

이는 승가의 화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기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승가의 어원인 'saṃgha'의 뜻이 화합임을 상기하면,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상기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보다 더 갖기 위하여 싸움도 불사한다.

여러 가지 불평등이 모두 불화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은 훨씬 더 그러하다. 경제적 불평등을 달리 표현하면 소유의 불평등인데, 공동체에서의 개인 소유의 차이는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는 탐하는 마음의 주요 요인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적게 소유하게 되면 성내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어리석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승가라고 하더라도 소유의 불평등은 구성원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시주물의 소유 문제는 승가공동체의 화합 여부를 판가름 짓는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집착을 끊으라는 근본적 가르침과 더불어 평등하게 소유하라는 방편적 가르침을 주셨다.

승가의 시주물 중 옷과 음식 등과 같이 개개인이 나눌 수 있는 가분물(可分物)은 동등하게 분배하여 개별적으로 소유하여 현재의 구성원들이 사용하게 하셨고, 정사나 토지와 같이 개개인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불가분물(不可分物)은 공동으로 소유하여 과거 · 현재 · 미래 승가에 전승하게 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승가에는 가분물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가 하면 불가분물을 개인 소유로 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듯하다. 부처님이 승가의 화합을 위하여 정하신 소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시대에 장소에 따라 달리 행해질 수 있는 율장 조문의 적용과는 관계없이 항상 어디서나 지켜져야만 한다. 전술하였듯이, 소유의 불평등은 승가의 분열인 파승(破僧)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승가의 소유 불평등은 현실적으로 그 해결이 절대 녹록하지가 않다. 특정 원칙과 그것의 실천은 종종 별개의 문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소속의 스님이 입적한 후에는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유언장의 작성을 종법(宗法)으로 의무화하였지만, 스님의 입적 후 개인 명의 재산들이 종단에 귀속되지 않고 외부로 망실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에서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승가의 소유 평등 문제는 근본적, 방편적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승가공동체 의식 교육의 강화이며, 방편적 해결책은 승가 공공재원의 형성이다. 승가공동체 의식 교육의 강화란 행자의 초발심 교육부터 비구의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종단 차원에서 승가가 화합 공동체임을 스님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여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승가가 화합공동체임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선 소유의 평등이 전제되어야함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가 공공재원의 형성이란 승가 전체의 공유재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스님을 승가의 공유재산으로 보살피자는 취지다. 출가하여 승가공동체의 구성원인 스님이 되었다면, 수행과 포교의 삶에 따른 생활과 노후는 승가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주어야 한다.

社 說

포교대상 문호 확대에 부쳐

조계종 포교대상의 수상자 폭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불법홍포에 공적이 큰 불자라면 누구라도 수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 4일 '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교대상 공적 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지며, 후보자격은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까지 확대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활동가들을 적극 포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 외 공로상 공적 기간은 10년에서 5년, 원력상은 3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취지에서 포교 활동에 나선 이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의 폭이 대폭 넓어지는 것이다.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의 경우 포교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포교대상의 문호를 타종단에게 개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종파와 세력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한 일불제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도반들이기도 하다.

포교 일선의 공로가 있는 불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것에 종단 간 허들을 낮추는 일은 불법홍포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사회는 이제 탈종교사회가 됐다. 명상 수행 등이 저변화됐지만 이것이 불교 입교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 홍포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과제다. 이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범종단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다. 포교대상의 문호 확대가 포교 롤모델의 발굴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동불60년, 불교학생회 부흥 계기로

종립 동국대 학생들의 불심을 이끄는 동국대 불교학생회가 2020년 60주년을 맞아 불교 중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펼친다. 그동안의 60년사를 정리하는 〈동불 60년사〉 발간과 함께 전국의 불교학생회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찬불가 경연대회를 여는 것이다.

상금 규모도 상당하다. 1600여 만원의 상금이 20개 팀에 전달된다. 최근 복원되거나 활성화되고 있는 불교학생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활발한 동문들의 활동이 뒷받침됐다. 동문 선배들의 꾸준한 모임과 네트워크 위에 불교학생회를 위한 마음이 모아진 결과다.

이런 측면에서 동국대 불교학생회가 추진하는 전국 동문 재학생 찬불가 경연대회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찬불가를 그 자리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대회를 위해 수개월간 주기적으로 만나며 부가적으로 친목을 다질 수 있다.

그동안 불교학생회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불교학생회 동문 선배들과 재학생들의 연결고리가 약했다. 다양한 단과대학에서 모이는 특성상 단과대학 동아리보다 졸업 후 결집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과 선배단 결집도 약한 것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꾸준한 재학생, 동문선배의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는 60주년을 맞아 동문 출신 선배들 중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도 연다고 한다. 이 또한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한국불교는 도반이 이끌어 간다. 불교 수행과 전법은 도반이 있으면 역량이 배가된다. 동불 60주년을 맞아 향후 불교학생회 선배와 후배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길 기원한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자전거, 지구 살리는 원운동

나는 한 때 자전거에 미쳤었다. 매일 자전거를 탔고 자전거로 산을 넘었다. 자전거를 배운 지 몇 달 만에 경주 안강읍에서 통일전망대까지 400km 가까운 거리를 내 몸을 엔진 삼아 달려가기도 했다.

모두 먼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린 자전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 '자전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단이지만 지구를 살리는 가장 큰 수단'이라는 말을 믿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사상가 이반 일리치도 세상을 구원할 세 가지로 시(詩), 도서관, 자전거를 꼽지 않았던가! 내 두 다리로 페달을 굴려 세상을 구원하고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동그란 원운동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이후 자전거가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자전거 인구는 항시 증가 추세이며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에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소 확충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만한 도로와 자전거 보관소,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도착하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거나 씻을 수 있는 시설 등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일본, 베트남 등의 경우 자전거는 생활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자전거는 보편화된 교통수단이다. 이는 일찍이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들은 지구의 작은 구성원인 인간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원운동이 '페달링(Pedaling)'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그 움직임은 나날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실례로 영국 교통경찰청은 도심에 자동차로 진입하면 혼잡통행료를 부과했다. 그 요금은 커다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경우 5만원, 일반 차량에는 1만 6000원 정도다. 2003년 시행된 후, 도심의 자동차 교통량은 21%,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가 줄고 자전거 통행량은 66%나 급증했다고 한다. 2011년 우리나라 자동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는 약 43.2km로 자동차 1대를 온전히 자전거로 대체한다면 하루 약 1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년이면 약 3.6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자전거 마니아이자 가수인 김창완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전거 타는 사람과 나쁜 사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 지나친 비약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두 종류의 사람 중 어느 쪽인가? 나는 현재 나쁜 사람 쪽이다.

하지만, 나는 조만간 자전거를 타는 사람 편에 있게 될 것이다. 베란다에서 잠자는 나의 자전거를 깨워야겠다. 아들과 가까운 강변을 달리며 '나를 움직이는 연료는 침묵이요 나의 엔진은 바람이요 나의 경적은 휘파람'이라는 유하의 시, 〈자전거의 노래〉를 함께 읊조려 봐야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매산사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84-152
- 주 지 : 혜양 (속명 : 이교형)
- 승 번 : 16808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